

■ 그림 여행



**그레비유의 우유 짚는 노르망디 소녀**  
(A Norman Milkmaid at Greville c. 1871)

장 프랑스와 밀레 (Jean-Francois Millet 1814-1875)

판지에 유채 80,01 cm x 55,56 cm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농촌에 대한 애정과 서정을 담아 목가적인 그림을 그렸던 19세기 프랑스 화가들이 있었다. 그들을 바르비종파라고 부른다. 장 프랑스와 밀레는 그 바르비종파의 아버지라고 불렸다.

밀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미술공부를 하고 오랜 습작 기간과 고생스러운 무명 화가 시절을 보냈다. 유럽이 근대화 되고 있던 무렵, 도시의 화려한 풍경과 급격히 부상하는 중산층, 혹은 상류사회를 묘사한 그림을 그리기보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농촌과 농부의 삶을 그렸다. 밀레는 농민과 노동자 계급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의를 가슴 아파했고, 미술의 인간적인 면이 자신을 가장 감동하게 한다고 말했다.

1847년에 처음으로 살롱에 작품을 출품했는데 들관에서 이삭을 짚는 세 여인을 그린 그림이었다. 사람들은 촌스럽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혹평했다. 밀레는 나는 본 것이 농촌밖에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가난하고 고생하는 농민들을 그렸지만, 그들을 비참하게 그리지는 않았다. 가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자존심과 존엄을 잃지 않는 의연한 존재로 그렸다.

힘들게 우유 통을 메고 가는 이 소녀의 그림에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경건함이 흐른다. 석양에 물든 오후의 하늘을 등에 지고 무거운 우유통을 어깨에 멘 소녀의 모습은 그림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다. 대지 위에 우뚝 서서 정직하게 노동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당당한 모습이다. 힘든 일을 묵묵히 견디며, 자기 앞에 있는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민초의 모습이다.

실제로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어딘지 모를 곳을 바라보며 앞으로 걸아가는 소녀의 모습이 그림을 보고 있는 관객의 현실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 오는 듯 했다. 삶 속에서 무심코 던지던 불평과 불만의 언행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던 순간이었다.

김동벽

**가든그로브 비타민 전문점**

**Organic Vitamins**

- 500종류 정도의 비타민과 원료구비
- 비타민 원료 : 아사이, 마취, 블루베리, 고지베리베리, 아로니아, 그라비올라, 크랜베리, 비타민나무, 여주농축액, 차콜, 클라겐, 블랙커런트, 모링가, 로얄제리원액, 페루산삼, 마카, 트라블러스(산삼보다 높은 사포닌 함유)



이제 비타민은 전문점에서 정확한 진단 후 복용하세요.



Tel. (714)534-4938  
9972 Garden Grove Blvd #G  
Garden Grove, CA 92844



Community Extended Care of Montclair

# 커뮤니티 양로병원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내 부모님처럼 섬기는 양로병원

**24시간 병간호**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 링거투여, 호스피스케어
- 외상치료, 호흡기치료, 기관절개치료

**각종 여가활동**

- 각종 교육 프로그램
- 아트와 게임
- 종교활동
- 운동 프로그램

**다양한 제공**

병원 예약, 차량제공  
영양상담과 다양한 메뉴 제공

메디케어, 메디칼  
Private/HMO/PPO

9620 Fremont Ave., Montclair, CA 91763  
**(909) 621-4751**  
한국어 상담: Faith Lim (562) 714-7792  
www.communityech.com

아늑하고 편안함,  
최첨단 의료시설과 환경  
한국인에게 친절한  
상담을 받으세요.